



기대감 높은 한주

## 편을 가르지 않아도. 양시장 모두 좋다



## 코스닥 상위 변동성은 불가피

일자	지수	전일대비	등락률(%)	시가	고가	저가	거래량	거래금액
2017/11/27	792.74	0.00	0.00	792.74	792.74	792.74	0	0
2017/11/24	792.74	▼ 4.06	-0.51	797.97	803.74	792.74	751,774	6,977,141
2017/11/23	796.80	▲ 15.90	2.04	778.84	796.81	773.32	756,158	7,753,523
2017/11/22	780.90	▼ 8.48	-1.07	793.79	796.28	779.20	894,398	9,341,728
2017/11/21	789.38	▲ 4.06	0.52	790.35	793.60	782.95	809,261	10,032,273
2017/11/20	785.32	▲ 9.47	1.22	776.74	785.32	776.31	834,840	6,599,204
2017/11/17	775.85	▼ 4.37	-0.56	776.32	779.57	770.55	767,763	7,058,197
2017/11/16	780.22	▲ 12.19	1.59	775.46	780.22	759.70	897,365	7,973,647
2017/11/15	768.03	▲ 11.57	1.53	759.55	773.05	755.06	944,938	9,884,172
2017/11/14	756.46	▲ 15.08	2.03	746.88	756.46	742.79	837,111	7,162,260
2017/11/13	741.38	▲ 20.59	2.86	724.76	741.38	724.76	687,075	5,809,626
2017/11/10	720.79	▲ 10.85	1.53	709.85	720.79	709.55	599,905	4,451,822
2017/11/09	709.94	▲ 0.83	0.12	710.71	711.78	705.28	614,814	4,446,661
2017/11/08	709.11	▲ 7.97	1.14	702.69	709.11	701.52	812,368	5,787,154
2017/11/07	701.14	▼ 2.65	-0.38	704.83	704.83	697.44	649,889	5,474,412
2017/11/06	703.79	▲ 2.66	0.38	703.20	704.16	699.75	595,341	4,591,080
2017/11/03	701.13	▲ 6.17	0.89	697.43	701.13	695.88	660,963	4,389,084
2017/11/02	694.96	▼ 0.81	-0.12	698.14	698.91	691.52	608,894	4,293,674
2017/11/01	695.77	▲ 1.57	0.23	696.65	696.93	694.27	630,556	3,584,513
2017/10/31	694.20	▲ 4.52	0.66	691.07	694.23	689.29	627,103	3,785,938

Fig. 6: MSCI기준 12MF PER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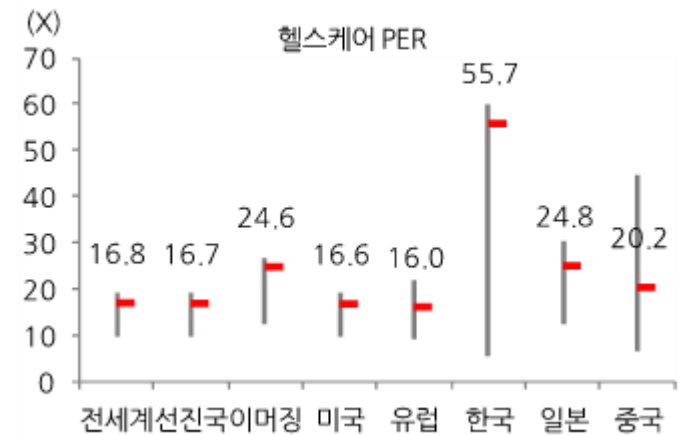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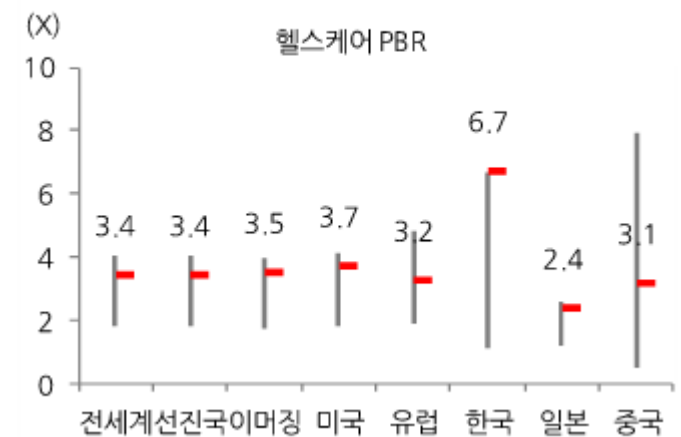


Fig. 7: MSCI기준 12MF PBR 밴드



## 금주 환율에 주목하는 이슈들

### 낮은 물가 아래 차기 연준의장으로 지명된 파월의 청문회 대기

또한 금주에는 엘런 현 연준의장의 연설과 더불어 미 의회에서 차기 연준의장으로 지명된 파월 이사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이미 FOMC 의사록에서 낮은 물가에 대한 연준의 경계감이 표출된 가운데 파월 차기 연준의장이 비둘기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시사할 경우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 약세를 부추길 수 있는 변수이다. 파월의 전반적인 성향을 감안할 경우 트럼프의 재정정책과 호흡을 맞추며 점진적인 금리인상과 완만한 속도의 보유자산 축소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내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의 성향이 올해보다 매파적으로 변한다는 점은 내년 1/4분기에 다시 변수가 될 것이나, 파월의 온건한 통화정책 성향은 일단 달러 약세에 보다 무게가 실린다.

### 한은, 드디어 금리인상 단행할 것이나 환율은 다소간의 부담

한편 한은에서는 금리인상을 결정하게 된다. 경제전망을 상향조정하였고 금리인상에 대한 의지를 사전에 피력했던 만큼 11월 금통위의 금리인상은 선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내년 추가 금리인상 여부가 변수이며, 만일 시장에서 형성된 한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인상을 뛰어넘는 신호가 나타날 경우 다소간의 마찰음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내년에 신임 총재가 선출되는 한편, 원화강세에 대한 부담을 감안할 경우 금리인상 기조의 수위를 급격하게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를 종합해 보면 시장개입 등으로 속도 조절이 예상되지만 수급측면에서 원화 강세 압력이 당분간 우위일 것이다.



## 파월 & 세제개편안 관심 보일 듯

- 트럼프 세제개혁안 → 이번 주 상원 전체회의 표결: 미국 상원이 트럼프 세제 개혁 중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2019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한 반면 하원은 2018년 적용하는 입장이어서 절충안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법인세 인하 관련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지난 16일 하원을 통과한 감세법안은 이번 주 상원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중 3명만 반대해도 법안이 부결되는데, 이미 콜린스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또한 매케인, 코커, 플레이크 등 중진들의 반대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반대파 머코스키의 찬성 선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로선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표결 결과에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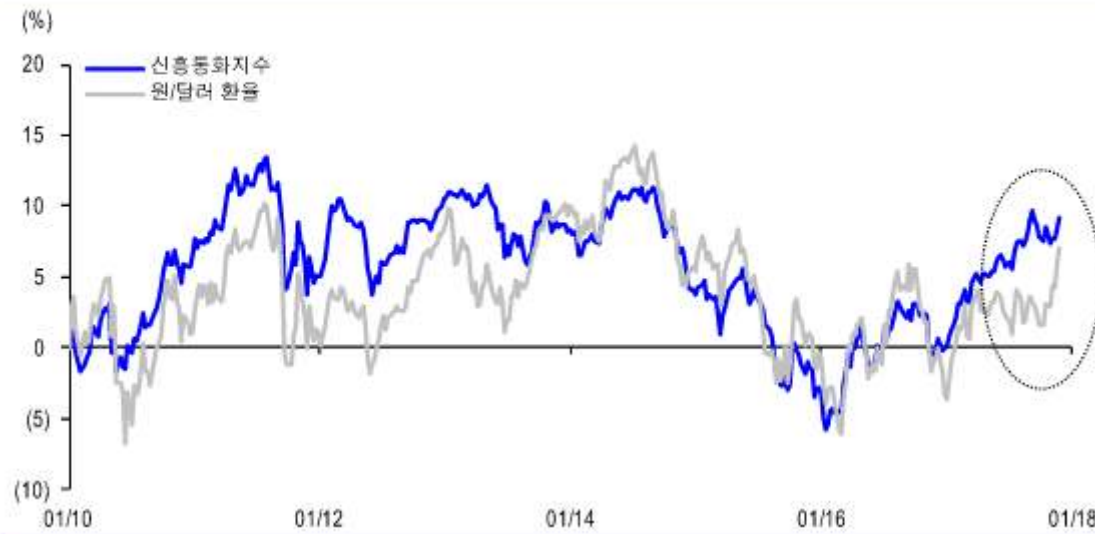
### 금주 주요 이벤트 및 관전 포인트

이벤트	날짜	시간	중요도	관전 포인트
미 더들리 뉴욕연은 총재 연설	11/28	09:00	★★	금융위기 이후 10년에 대한 논의
트럼프 미 대통령, 빅4(공화당/민주당 상하원 원내대표) 회담	11/28-29	--	★★★	셋다운 방지 위한 예산규모 합의 및 세제개편안 논의
미 의회, 파월 차기 연준의장 청문회	11/29	00:00	★★★	미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 및 금융규제 스탠스
미 더들리 뉴욕연은 총재 연설		22:30	★★	미국 경제성장 여건 및 인플레이션 압력 논의
미 엘런 연준의장 합동경제위원회(JEC) 중언	11/30	00:00	★★★	미국 경제전망 연설. 임기 종료 전 마지막 연설 가능성
미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연은 총재 연설		02:45	★★	2018년 투표권 행사,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의견 제시
미 연준 베이저북		04:00	★★	미국 지역별 경제 개선 정도 판단
한국은행 11월 금통위		--	★★★	한국은행 금리인상 가능성
OPEC 정례회의		--	★★★	OPEC 감산합의 연장 여부
미 카플란 달러스연은 총재 연설	12/1	03:00	★★	미 연준 12월 금리인상 지지 여부

주 : 날짜와 시간은 한국기준

## 원화 강세 단독 드리블 마무리 기대

신흥통화지수와 원/달러 환율 추이: 갭 메우기 진행





## 다시 코스피가 오르기 시작한다면...



# 제안포트 반등 기대







Thank you